

‘푸름 나눔’ 서로의 안부를 묻다

아시아현대미술연구소 등 주관...16~21일 무등현대미술관
16일 시민자유대학 특별행사·21일 아트피플 라이브 토크도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 미혼모의 집 ‘성모의 집’에 기부 예정

푸른 뱀의 해에 아트피플이 펼치는 ‘푸름 나눔’. 세상에는 여러 나눔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로, 봉사로, 시간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귀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예술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재능과 미(美)가 결부된다. 작가는 자신의 재능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공유할 때 빛을 발한다.

‘아트피플 푸름 나눔전’을 비롯해 아트토크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는 16일부터 21일 까지 무등현대미술관.(개막식은 16일 오후 6시)

아시아미술연구소(대표 김허경),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이 주관하는 ‘푸름 나눔’전은 창의적인 작품으로 광주시민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시아현대미술연구소와 창의융합 문화공간 SUM이 주최하며 무등현대미술관, 예술공간 집, 시민자유대학, 공간커뮤니케이션, 음악교육(주)에듀프라이프, 미사모(광주지역 모임)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를 제안한 정송규 관장은 “시국도 어수선하고 작가들도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젊은 작가들의 미술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다”며 “작품을 매개로 서로 의견

도 교환하고 전시도 여는 방안을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 관장은 “시민자유대학 김용근 교수, 김허경 박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조성숙 화가에게 제안을 했고 이를 토대로 각각 5명씩 작가를 추천했다”며 “그 결과 30여 명 작가가 참여의사를 밝혀 전시가 꾸러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일정 부분 향후 미혼모의 집인 ‘성모의 집’에 기부된다. 산모와 아이가 생활하며 자립 기회를 모색하는 성모의 집은 ‘생명은 희망’이라는 가치를 도모하는 곳이다.

출품 작가로는 김25를 비롯해 김기현, 김동하, 김왕주, 김용근, 김주연, 김지준, 류현자, 박정일, 설상호, 엄기준, 오수경, 윤석문, 이두환, 이상호, 이정기, 이지연, 임현채, 장용림, 정송규, 정승원, 정해영, 정향심, 조성숙, 조정태, 하루K, 한미경, 한희원 등이다.

또한 콜렉터로 B70, 우제길, 정승주, 황영성, 이내, 무라카미다카시, 주태석, 우병출, 박주하, 허임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허경 박사는 “나눔과 상생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 끝에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희망과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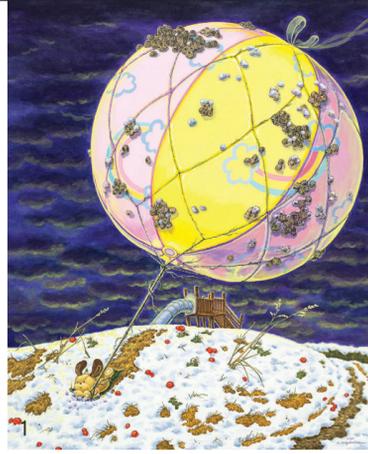
나누고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게 됐다”며 “푸른 뱀의 해, 예술가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와 연계한 특별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개막식 당일 오후 5시에는 시민자유대학 특별행사가 펼쳐진다. ‘시민의 밤-평화의 바람이 되어’는 매년 시민자유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를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옮겨 더 많은 관람객과 함께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오는 21일에는 ‘광주미술의 새로운 전방’을 주제로 ‘아트피플의 라이브 토크’가 진행된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송규 관장, 문희영 관장(예술공간 집), 김허경 박사, 김



1 임현채 작 ‘언덕 너머로부터’
2 이두환 작 ‘Artist’
3 김25 작 ‘Cast a spell’



상연 작가, 임용원 작가 등이 참여해 광주 미술의 생태계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공감의 장을 열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과 함께 즐기다 ‘화폭與동락’

광주미협, 2월 23일까지 ACC
김해성·류신·리일천 등 20명 참여

‘화폭與동락’은 ‘그림과 함께 즐기다’라는 의미다. 작품을 매개로 자유롭게 교감하고 나누자는 확장된 뜻을 담고 있다.

광주미협(회장 박광구)이 ‘화폭與동락’전을 오는 2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진행한다.

참여 작가로는 고근호(조각), 김광길(공예), 김현진(서양화), 류신(수채화), 박인주(한국화), 김해성(서양화), 리일천(사진), 양나희(서양화), 한태희(수채화) 등 다양한 분야의 20명 작가들이다. 이들은 회화를 비롯해 조각,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 63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2-3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화폭與동락’이라는 주제에 맞게 누구나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작품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전시 관람에 특별한 경계를 두지 않고 일상 속에서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감상하자는 취지다.

박광구 회장은 “시민들이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

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ACC, ACC재단과 지역 작가 간 협력을 토대로 지역 문화적 에너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근호 작가의 ‘쓰레기반가사유상’은 정교하면서도 아름답다. 외견상 가부좌를 튼 불상처럼 보이지만 얼핏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을 구현한 것도 같다. 사람의 형상을 ‘쓰레기반가사유상’으로 명명한 네이밍이 눈길을 끈다.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작은 세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박인주의 ‘사랑과 평화’는 평범해보이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조형화한 한국화 작품이다. 풍경 너머 정겨운 이웃들이 웅기종기 모여사는 모습이 그려진다. 오늘의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는 한뼘쯤 되새겨볼 계기를 준다. 마을을 휘돌아 뻗어있는 아련한 시골길은 보는 이에게 정서적 감흥과 아련한 옛 추억을 환기한다.

한편 전시와 함께 도록 700부가 발간돼 기록과 공유의 매개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조적 역량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근호 작 ‘쓰레기반가사유상’



ACC 우당탕탕 인턴십 리플릿 운영 장면.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운영 모습. <ACC 제공>

ACC,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 진로 탐색

우당탕탕 인턴십·평화이야기보관소

ACC 우당탕탕 인턴십,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2025년 ACC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과 ‘ACC 평화이야기보관소’를 진행한다.

먼저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4~7월과 9~12월, 매주 화요일)은 디지털 게임형 교육으로 회당 150명 내외로 운영된다. ACC에 인턴으로 출근해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등 주요 공간을 다니며 공연 제작을 비롯해 전시기획, 연구조사 등 문화예술 분야 진로를 탐색한다. 수행 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시 기반 교육은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흥

보마케터, 테크니션(설치기술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연은 연출가,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악감독 등 업무를 체험하며 문화정보원에서는 아카이브 큐레이터, 아카이비스트(기록관리 전문가), 사서, 컨서베이터(보존처리전문가) 등 업무를 체험한다.

‘ACC 평화이야기보관소’(2005년 5월, 매주 목요일)는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종교, 난민, 독재 등 폭력의 역사를 알아보고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단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역량과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0주년 민청학련 증언 고스란히 ‘영원한 청년’ 상영

광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최초 공개
김산·장여진 감독...16일 독립영화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학생 180여 명이 불온세력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면서 총 1000여 명을 조사했고 다수에게 중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는 이 사건을 ‘왜곡된 학생운동 탄압 사건’으로 규정, 재조사를 진행해 2009년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민청학련 50주년을 맞아 당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환기하는 상영회가 열린다. 민청학련 50주년 광주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원한 청년’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장여진 감독의 영화 ‘영원한 청년’은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이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의 영상물. 이번에 최초 공개한다.

영상에는 민청학련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농대에서부터 차근차근 법대, 상대, 공대, 인문대 다 뿌렸어

‘영원한 청년’ 속 한 장면.

이강 씨는 “당시 농대에서부터 법대, 상대, 공대, 인문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선전물들을 배포했던 기억이 난다”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됐던 민청학련 운동을 회상한다.

최철 씨 또한 “민청학련 관련해서 들어온(입건) 사람이 거의 1000여 명에 달했다”면서 학생들이 구속되었던 잔학무도한 상황을 언급한다.

이민철 광주주마당 이사장은 “지난 2016년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국가배상금을 모아 지역 청년 육성에 일조하는 ‘(사)광주마당’을 설립하기도 했다”며 “이번 행사가 민청학련이 추구했던 민주화 정신과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떠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진행(선착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청년 교육단원’ 선발...24일까지 접수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한다. 오는 24일까지 누리집에서 접수.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별 각각 10명, 4명,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무형문화유산 종목 이수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악단(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등)은 과제곡으로 산조 ‘진양, 자진모리’를 암보(5분 이내)로 비대면 제출(사물은 대면평가)해야 한다.

성악단 판소리는 5바탕 중 자유곡 5분, 병창은 ‘적벽가’ 중 ‘화룡도’를, 경기민요는 ‘제비가’를 각각 비대면으로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무용단은 창작무용 2분을 대면해서 실연 평가받는다.

선발 단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악원 연주단 연습실에서 교육받게 된다. 월 150만 원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자를 대상으로 국악



지난해 청년국악인 육성을 위해 진행했던 ‘미래 교원 국악연수’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

국악원 박정경 원장은 “폭넓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공모가 창의적이고 유능한 청년 국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분야별로 전형용 악기 지침이나 음원 제공 여부, 추임새의 가부, 복색 등이 규정돼 있으니 공모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